

전북자치도, 경제협력 위해 중국 방문

'중국 실리콘밸리' 선전시서 전북 투자유치 활동 전개 베이징 한상운영위 참석... 대회 개최 본격 준비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비롯해 올해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 준비 등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나선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등 대표단이 오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선전시, 베이징시, 장쑤성을 차례로 방문, 장쑤성 30주년 기념식, 전북 투자유치설명회 등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7차 한상운영위원회에 참석, 2024전북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5월 6일, 중국개혁개방의 상징지역이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는 선전시를 방문,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방안에 대해 간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선전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설명회 및 비즈니스 만찬을 개최, 전북의 투자환경, 주요산업 등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주요기업과 개별 면담도 예정돼 있다. 5. 7일과 8일에는 베이징으로 이동, 10월 전북에서 개최될 세계한

인 비즈니스 대회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 현황을 설명한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많은 세계 한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요 운영위원과 간담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의 중국 교류지역인 장쑤성도 공식 방문한다. 장쑤성은 전북특별자치도 중국 교류지역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올해 양 지역 교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했다.

도와 장쑤성은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첫 번째 중국 교류지역 공식 방문이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류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래된 인연 만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한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위해 신 창성 당서기, 우 쟈린 당서기와 공식 면담하고 양 지역간 전략위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기간 중 교류 30주년 첫 번째 교류 사업인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전 '전북특별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특별전'을 9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장쑤성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전북도립미술관과 장쑤성미술관은 2014년에 양 지역 교류를 계기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교류 30주년을 맞아 전북의 문화를 장쑤성민에게 알리고, 상호 문화를 통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장쑤성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의 본사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 중국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재훈 기자

고향사랑 기부자 취향 맞춤형 답례품 선정

전북자치도, 도내 맛집 식사권 등 7월 중 선보여

전북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다양하고 매력있는 답례품 목록으로 찾아온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전북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3차 답례품 21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북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지난 1, 2차 답례품 선정으로 총 78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번 3차 선정 품목을 더해 총 99개 품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호도를 살펴보면 사과, 쌀, 치즈, 이강주, 계장 순으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를 고려해 전북자치도는 기부자 선호도 및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지역특산물 등의 품목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추가된 답례품은 전북만의 특색있는 농산물 5종과 1인 가구를 위한 가공식품 7종, 공예품 2종이다.

또한, 힐링·원예체험 쿠폰 등 관

333개 특례 75개 사업 연말까지 특례실행 준비 '착착'

추진상황 3차 보고회 개최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올 연말 특별법 본격 실행을 앞두고 특례별 제도 정비 및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시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국별로 특례별 목표와 특례실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 정책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고, 매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15개 지구·단지 조성 특례 중 8개 특례는 2024년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며 7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부처 협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특례로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올 연말 특별법 본격 실행을 앞두고 특례별 제도 정비 및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앞당겨 목표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조례 제·개정 대상 69건 중 상반기에 19건 하반기에 50건을 추진을 목표로 상반기 내에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특례 실행에 필요한 국비확보 및 국가예산 사업발굴을 위해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사업발굴 및 국비확보 대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차 특례발굴과 연계하여 국가예산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연말에 특구 지정특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도내 취약계층 1740세대에 보일러 무료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740가구 규모의 에너지 홀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에너지 홀더'는 선정된 전문업체

가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일러 점검 및 수리 △노후 부품 교체 △청관제 투입 등을 추진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인

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만 2,624가구에 20억여원을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로 등유, 연탄사용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희망하는 세대에게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신청은 5월부터 읍·면·동 행정부

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시군마다 신청 시기가 지원 시기가 달라 해당 시군에 문의해 자세한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된 시군은 사업종료까지 전문업체가 가정방문을 통해 보일러를 점검하고,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전체 토지의 74%인 285만 4,026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20년 11월)'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가격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전북자치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37%(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 변동률 1.21%보다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군산시가 1%로 변동율이 가장 높고, 장수군이 -0.29%로 하락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701만5,000원/㎡,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258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

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관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이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공시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